

“골프문화 정착·주니어 골프 육성”

한국미드아마추어골프연맹 오기종 회장

한국미드아마추어골프연맹(KMAGF)은 지난 2010년 10월, 대한골프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대한골프협회 산하 연맹으로 설립됐다. 연맹은 설립 이후 아마추어골프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골프 꿈나무도 배출하는데도 끊임없이 노력 중이다. 지난 3일과 4일에는 보성CC에서 '제11회 KMAGF회장배 미드아마 챔피언십'이 열렸다. 이 대회는 한국미드아마추어골프연맹(KMAGF)이 주·주관하고 남도금형(주)과 보성CC가 후원했다. 남도 골짜기 보성CC에서 KMAGF 오기종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보성서 KMAGF회장배 미드아마 챔피언십 개최 아마추어 골퍼 실력 향상·골프 대중화 위해 노력

-연맹을 소개한다면.

▲한국미드아마추어골프연맹(KMAGF)은 창립 이래 골프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각별한 신뢰와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연맹은 아마추어 정신에 따라 등 록단체 및 선수 상호 간의 자치적인 활동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골프 경기의 건전한 발전 및 올바른 골프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주니어골프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순수 아마추어 골퍼들의 실력을 겨룰 기회를 장 마련을 위해 연간 결선과 예선을 모두 포함한 20여 개 이상의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회를 통한 아마추어 랭킹 산출을 통해 매년 랭킹 1위는 GS칼텍스 매경오픈 대회 출전, 그 밖에 아마추어

어골프발전·주니어 골퍼 발굴 지원활동 등을 하고 있다.

-제11회 KMAGF회장배 미드아마 챔피언십을 보성CC에서 개최했다. 보성에서 대회를 추진한 이유와 배경은.

▲보성CC는 주월산 자락에 있어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린 계단형으로 설계된 모든 홀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코스로 유명하다. 특히 보성CC는 한국 초등학교골프연맹 대회와 매년 개최하는 곳으로 주니어골프 발전과 육성에 기여하고 있는 골프장이다. 우리 연맹 또한 주니어골프 발전과 육성에 힘쓰고 있고, 올해 상반기 함께 뜻을 모아 주니어뿐만 아니라 미드아마추어 발전을 위해 후원 협약을 체결하

고 한국미드아마추어골프 대회 중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인 KMAGF회장배 미드아마 챔피언십을 개최하게 됐다.

-이번 대회에는 어떤 선수들이 참가했는가. 경기 진행 방식은.

▲이번 대회는 한국미드아마추어골프의 가장 권위 있는 대회다. 매년 아마추어 랭킹 산출을 통한 랭킹 10위 이내의 선수들, 연맹 주·주관 대회와 한국미드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상위권 입상자 선수들로 시드권을 부여받은 명실상부 한국미드아마추어골프의 최강자들이 참가했다. 경기 진행 방식은 이틀간(제1일 경기, 최종일 경기) 36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했다.



오기종 회장

라 기존의 선수들에게도 연맹의 설립 목적인 건전하고 올바른 골프 문화 정착을 위해 연맹은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주니어 골퍼 발굴, 육성을 위해서도 게을리하지 않고 미드아마, 주니어 가릴 것 없이 골프 발전에 온 힘을 다하겠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아마추어 골프 발전이 곧 골프의 대중화로 이어진다. 온 국민이 골프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연맹 설립목적에 근거해 골프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연맹의 '도전과 변화'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주연 기자



해남 화원면 청자요지에서 발견된 청자가마 불창시설. /해남군 제공

해남 화원면 청자요지서 '불창시설' 발견 월주요 청자 구현...초대형 가마터도 확인

국내 최대 규모의 초기 고려청자 생산지인 해남군 화원면 청자요지에서 청자가마 최초로 불창시설이 발견됐다.

12일 해남군에 따르면 불창시설은 오름가마(등요) 내부의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마 내부에 약 2.5m 간격으로 기둥을 설치한 시설이다.

우리나라 청자 가마에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고급 비색청자 구현에 쓰이던 당대 최첨단 기술이다.

불창시설 발견으로 해남지역에서 강진보다 이른 시기에 고도의 기술을 토대로한 독자적인 고급 청자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초기 청자의 구조와 계통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발굴 조사 결과 청자요지 유적지

내에서 길이 45m에 달하는 대형 진흙가마를 비롯해 중국 월주요의 비색 청자를 구현한 최고급 청자파편 유물 수백여점도 발굴됐다.

불창시설이 조성된 진흙가마는 지금까지 조사된 한반도 남서부지역 진흙가마 중 최대 규모이다. 그동안 한반도 남서부 지역의 초기 청자가마는 길이 약 20m 이내의 소규모 토축요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발견된 청자편은 굵 깎음이 매우 단정하고 당대 최고급 청자인 중국 월주요 청자와 유사한 올리브그린 색상을 띠고 있다. 강진보다 빠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고려 비색청자의 비밀을 푸는데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박병태 기자

담양 대나무 소재화 기술 개발 '박차'

산림자원연구소·전남대·조선대 산학협력단 연구 공유

담양군이 최근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전남대·조선대 산학협력단과의 공동 연구 '국산 대나무 최적 가공 및 고부가가치 소재화 기술 개발' 과제의 1차년도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현재 전남대(이형우, 박충년, 정우양 교수)는 대나무 소재 최적 가공기술개발을,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대나무 항진균 처리를 통한 보존처리법 규명을, 조선대(신현재 교수)는 고품위 대나무 가공 용기를 적용한 지속 가능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1차 년도의 연구 성과로 전남대의 경우 원하는 재색을 얻을 수 있는 열처리 온도

평판화 속도 촉진 기술과 불량률 저감 기술 개발, 대나무 변색 방지 및 착색 기술을 규명했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대나무 발생 곰팡이 균주 분리 동정을 완료했으며 조선대는 대나무 추출물의 특성평가를 통해 무독성을 확인하고 디퓨저, 캔들 등 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앞으로 2차 년도 연구성과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업체의 참여방안 모색과 산림청 자료 공유를 통한 국산 대나무 최적 가공 및 고부가가치 소재화 사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명사십리 스머프 조형물 눈길 완도, 해양생태계 보존 동참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개구쟁이 스머프'가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조형물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스머프 조형물이 설치된 배경은 유엔이 채택한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환경교육재단(FEE), 스머프(벨기에 IMPS그룹)와 매년 해양환경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인증인 '블루 플래그'를 보유한 완도군이 동참하게 됐다. /완도·최규옥 기자



완도 신지명사십리해변에 설치된 스머프 조형물. /완도군 제공

클릭! 고향 속으로



(주)한일수기, 남평읍에 마스크 전달

(주)한일수기 정일근 대표가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마스크 1,500매를 나누시 남평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정 대표는 "취약계층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남평읍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흥군 남평읍장은 "지역사회 온정과 상생에 전념한 정일근 대표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주)한일수기는 남평읍에 제조공장을 만들어 나누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천시설물인 권양기와 수문 등 제작, 설치하고 있다. /나주·염규동 기자



죽풍동우회, (재)담양장학회에 장학금 기탁

담양 죽풍동우회 회원들이 최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미래천년 장학금 100만원을 (재)담양장학회에 기탁했다. 죽풍동우회는 1962년 동기동창생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 구성된 모임으로 회원들 모두 지역의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과 나눔에 앞장서고 있으며, 2011년 담양장학회와 첫 인연을 맺은 이래, 매년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

며 지역과 고향 후배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관신 회장은 "2011년부터 10년 동안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해준 회원 후배들의 미래에 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부듯함을 느끼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장학금 기탁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장흥 관산로타리클럽, 천관산 환경정화

장흥군 관산읍행정복지센터와 관산로타리클럽이 최근 단풍이 절정을 이룬 천관산 환경정화에 나섰다. 관산로타리클럽은 지난 9월 삼산방조제 일원의 해양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음 기회에는 푸른 숲 가꾸기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관산로타리클럽과 관산을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휴일도 반납하고 최근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천관산의 환경정화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 및 등산객의 낙상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병행했다. 이재호 관산로타리클럽 회장은 "관산을 직원들과 함께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